

7/4(월) 느헤미야 묵상 24

느헤미야 13:1-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임무대로 52일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약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다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점차 타락해갔기 때문입니다.

그 날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은 '그 날'에로 시작됩니다. 이는 느 12:44절의 '그 날'과 동일한 날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느 12: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즉 성전 봉헌식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넘치던 날을 말합니다. 이 때 느헤미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1-2절, "그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여기서 느헤미야가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직도 유다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같은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은 본래 아브라함의 조차 롯의 후손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여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그들의 땅을 통과할 때에 브올의 아들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민 22-24장).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진정한 이방인 개종자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 배우자와 살고 있거나 또는 일부 개종자 행세를 했던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사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이 율법대로 '저주로 맹세했던' 언약의 내용들이었습니다(느 10:38하-39상,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지만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유다를 잠시 떠나고 시간이 흐른 사이에 또다시 그들의 맹세를 취소하고 타협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역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말 2:11,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즉 유다 백성들은 말로만 맹세하고 결단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순종과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한편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내면과 외적인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구두의 맹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무리들 가운데 섞인 이방인들은 이방 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고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자녀들도 이방인과 혼인시키지 말 것을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신 7:3-4,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은 결국 가족들이 생이별을 해야 하는 대참사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만약 이들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외적인 성벽 재건은 52일만에 완성이 되었지만 내적인 성벽인 백성들의 거룩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또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은 만약 이방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생이별하기 싫다면 자신들의 믿은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개종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배우자들은 설령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매우 달콤하게 그 결과는 쓰고 무척이나 처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든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한국을 위한 기도:** 대한민국의 새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한국 교회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교회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햄튼 4 구역입니다.
4. **협력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중국 정후란시스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